

# “재산 절반 5500억 이상 환원”...기부문화 바꾼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어 기부 선언  
“빌 게이츠의 서약 기사 읽고 꿈꿔”  
‘흙수저’ 기업가들 통큰 기부에 관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부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5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기부 서약을 했다. 기부클럽 ‘더기빙플레지’에 실린 김봉진-설보미 부부 사진출처 | 더기빙플레지 캠페인 페이지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 회 의장에 이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했다. 두 의장은 자수성가한 창업가, 그것도 대표적인 ‘흙수저’ 벤처기업가로 분류된다. 해외에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가들이 많다. 국내에서도 통 큰 기부를 하는 재계 총수들도 있고,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을 쏟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내놓고, 기부주체가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려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어려운 형편을 딛고 성공을 일군 기업가들의 연이은 대규모 기부 선언이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바꿔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김봉진 의장이 기부 서약자로 인정받은 기부클럽 ‘더기빙플레지’도 2010년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운동이다. 회원의 약 75%가 빈손으로 시작해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들이다. 현재 24개국, 218명이 기부를 선언했다. 그중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등이 있다. 김봉진 의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이자 세

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됐다. 한국은 세계에서 25번째 서약자가 나온 국가가 됐다.

더기빙플레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회원 간의 도덕적 약속, 세계인을 상대로 한 선언이다. 회원들은 해결하고 싶은 이슈에 따라 국내외의 자선단체, 비영리단체에 자유롭게 기부하며 선언을 이행하게 된다. 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김봉진 의장의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봉진 의장은 서약서에서 “아내 설보미와 저는 평생 동안 우리 부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10년 전 직원 20명 미만의 회사를 운영할 때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서약을 한다는 기사를 읽고 언젠가 스스로 서약을 하는 꿈을 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범수 의장은 8일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액은 5조 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의장은 사내 구성원 간담회를 통해 기부 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두 의장이 재산을 기부하게 된 배경은

어려웠던 성장시절을 겪었던 만큼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를 대물림해 온 재벌과 다른 점이다. 김범수 의장은 1999년 한계임을 창업한 뒤 네이버와 합병했고, 2010년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놓았다. 국내 주식부자 순위 5위 안에 꼽히는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가다. 하지만 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을 나올 만큼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다. 김 의장이 지난달 친인척들에게 카카오 주식을 증여한 것도 이런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란 얘기가 많다.

김봉진 의장은 2011년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해 ‘배달의민족’을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로 키웠다. 그리고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김봉진 의장이 매각 대금으로 받은 DH 주식 가치가 뛰면서 현재 그의 재산은 1조 원 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전라남도 완도 출생인 김봉진 의장은 “고등학교 때 방이 없어 손님들이 식당을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미술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는 학비도 겨우 감당했다”고 회상했다.

김범수 기자 dionys@donga.com

## 날씨와 생활

19일(금)

서울	0/30	인천	0/20	수원	0/20
	-5 9		-3 8		-6 10
춘천	0/30	강릉	0/20	청주	0/0
	-9 8		-1 13		-6 10
대전	0/0	전주	0/0	광주	0/0
	-6 10		-5 11		-3 11
대구	0/0	울산	0/0	부산	0/0
	-5 13		-3 12		-2 11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4 11		3 13	날씨	최저 최고기온°C

☀ 해돋이 07:17 해질 18:15 🌙 달돋음 11:08 달질림 00:28

산 날씨	
북한산	-7/10
설악산	-2/11
오대산	-8/9
속리산	-9/9
계룡산	-8/9
내장산	-5/10
무등산	-7/11
주왕산	-10/10
지리산	-6/13
한라산	1/13
바다 날씨	
인천출도	-3/8
제주도	-5/11
경포대	-1/13
속초	-3/11
대전	-7/10
안면도 꽃지	-7/10
변산반도	-4/11
거문도	-4/12
해운대	-2/11
제주도	3/13
미세먼지	
서울	12
부산	14
대구	13
인천	12
광주	12
대전	11
경기	11
강원	12
전북	10
제주	9

## 초기 유방암서 발견되는 ‘유방 미세석회화’...정기검진이 중요

건강유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로도 알려져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 10만 명당 2.8명이었다.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10.2명이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음주 등과 같이 올바르지 않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유방암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35세 이후에는 2년마다 병원에 내원해 의사의 진료를,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 등

유방촬영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유방 검진 시 ‘유방 미세석회화’로 진단을 받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 10% 정도에서 암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방미세석회화는 유방 조직에 칼슘 성분이 침착돼 유방 촬영 시 작고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 주로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양성 석회화는 유방 사진촬영 상 대개 1~2개의 석회질을 보이며 모양이

깨끗하고 석회질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다. 유방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모양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유방에 멍울이 잡힌다면 즉시 유방외과를 내원해 정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악성 석회화다. 초기 유방암에서도 석회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사진에서 미세한 석회화가 여러 개 집합돼 나타나거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유방암에 의한 악성 석회화 침착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유방 검사에서도 석회화로 인한 이상 소견

이 보인다면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과 양성 유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세석회화의 조직검사 시에는 진공흡인 유방생검술(맘모톰)로 충분한 조직을 채취할 수 있으며 시술 이후에도 회복이 빠르며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 당일 검사와 퇴원이 가능하고 빠른 일상 복귀도 가능하다. 유방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천안유방외과 미우외과  
인승현 원장(외과 전문의)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에시앙' 할인분양

부영주택은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공급 중인 창원월영 ‘마린에시앙’이 2월 한 달 2% 할인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착순으로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으며 곧바로 입주 및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창원월

영 ‘마린에시앙’은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84㎡ 3116세대, 124㎡ 584세대, 149㎡ 598세대 등 총 4298세대 규모로 현재 전체 물량의 90% 정도가 소진된 상태다. 분양 홍보관은 현장 위치한 창원 마산합포구가 포승환로 33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해 있다.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 확장 개관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L대덕연구소 내에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용인에 자리잡고 있던 안전체험학교를 이전해 마련된 안전체험학교는 지상 2층, 연면적 1684㎡로 기존보다 40% 이상 규모

가 커졌다. 총 21종의 교육 및 체험 시설로 구성돼 있다.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DL이앤씨는 안전체험학교 운영과 다양한 안전 혁신 활동을 통해 관련 사고가 나지 않는 작업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훈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20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승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사모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2월 19일(금) 음력: 1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비바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무지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노을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맑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해·번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장마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오늘은 주변의 변화로 인한 이득이 있는 날이다. 상속 받는 일, 복권당첨일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도움으로 이득이 있는 날이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골게 가지면 이롭다. 앞으로 전진하고 싶는데 주변에서 좀 더 기다리라며 나를 잡는다. 답답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큰 뜻을 펼치고 싶은데 날이 저문다. 이 뜨거운 정열을 어떤 방식으로 식혀야 한다. 속에 간직한 사연이 많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공연회 분주해지고 심란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다. 별것 아닌 일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삼가라.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화제가 화개를 만난 날이다. 화개란 자신을 가리고 덮고 튀지 않게 하려는 면이 강한 기운을 말한 다. 호랑이띠와 말띠를 만나라.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 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원전과 귀문살의 날이다. 뽕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닭띠나 돼지띠와 함께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쾌청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진눈깨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여우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먹구름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무리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탐을 쌓을 수 있다. 예술과 문학 등의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오늘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관재수도 발생할 수 있으며 남쪽방향에서 귀인을 만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자신감을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나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월살일이다. 원숭이는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하려 하는데 개가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용띠 생을 만나면 어려움이 풀린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방터에 있어야 할 장군이 내근직에 앉았으니 답답하다. 그러나 곧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운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돼지띠가 귀인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되든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화제가 화개를 만난 날이다. 화개란 자신을 가리고 덮고 튀지 않게 하려는 면이 강한 기운을 말한 다. 호랑이띠와 말띠를 만나라.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자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잔잔한 바다위에 돛을 높이 올리고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형상이다. 개밭되기를 기다리던 돼지띠에 이제 막 첫 삽을 찼었다.